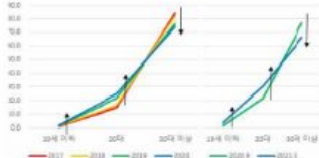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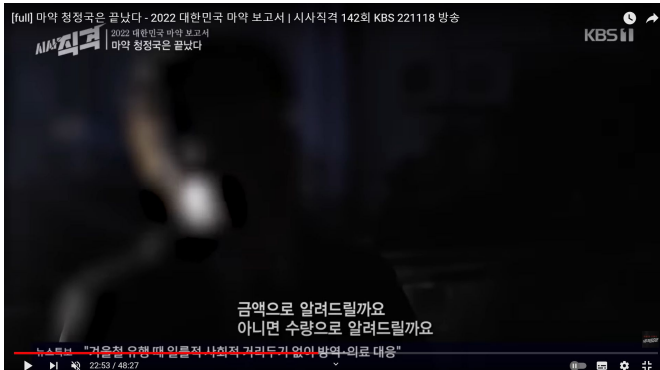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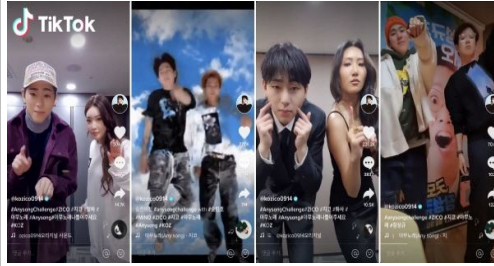


청소년 정책 제언서

제언하는 내용의 주제	청소년 참여를 증진 시키는 트렌디한 예방 캠페인 시행																												
제언이유	<p>○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뉴스기사와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의 발달과 마약의 위험성, 그리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뷰 등 마약문제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와 예방 교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p> <p>○하지만 이러한 마약에 관한 이슈와 뉴스, 예방 교육 등이 일방적으로 정보 주입식이며 어른들의 시각만이 반영되어 있고 정작 마약에 노출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시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마련하기 위해 제언하게 되었다.</p>																												
현황 및 문제점 분석	<p>○21.11.29. 배포된 보도자료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증가한 마약의 접근성을 대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실효적인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지만, 본질적이지 못한 마약 예방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10~20대) '21. 9월 기준 10대는 358명으로 전년동기(179명) 대비 100% 증가, 20대는 3,621명으로 전년동기(2,729명) 대비 32.6% 증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연령별 마약류 사범 수 및 구성비 현황(단위: 명(%))</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도</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0.9</th> <th>2021.9</th> </tr> </thead> <tbody> <tr> <td>10대</td> <td>119 (0.8)</td> <td>143 (1.1)</td> <td>239 (1.5)</td> <td>313 (1.7)</td> <td>179 (1.4)</td> <td>358 (3.0)</td> </tr> <tr> <td>20대</td> <td>2,112 (15.0)</td> <td>2,118 (16.8)</td> <td>3,521 (21.9)</td> <td>4,493 (24.9)</td> <td>2,726 (21.8)</td> <td>3,621 (30.5)</td> </tr> <tr> <td>30대 이상</td> <td>11,892 (84.2)</td> <td>10,352 (82.1)</td> <td>12,284 (76.6)</td> <td>13,244 (73.4)</td> <td>9,574 (76.8)</td> <td>7,900 (66.5)</td> </tr> </tbody> </table> </div> <p>>> 현재의 마약 교육은 마약의 근절이 목적이지만 청소년들의 수준이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실용적이지 못하고 너무 과도한 정보 주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약에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p> <p><마약의 금액과 수량마저 알려주는 학교의 교육영상></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0.9	2021.9	10대	119 (0.8)	143 (1.1)	239 (1.5)	313 (1.7)	179 (1.4)	358 (3.0)	20대	2,112 (15.0)	2,118 (16.8)	3,521 (21.9)	4,493 (24.9)	2,726 (21.8)	3,621 (30.5)	30대 이상	11,892 (84.2)	10,352 (82.1)	12,284 (76.6)	13,244 (73.4)	9,574 (76.8)	7,900 (66.5)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0.9	2021.9																							
10대	119 (0.8)	143 (1.1)	239 (1.5)	313 (1.7)	179 (1.4)	358 (3.0)																							
20대	2,112 (15.0)	2,118 (16.8)	3,521 (21.9)	4,493 (24.9)	2,726 (21.8)	3,621 (30.5)																							
30대 이상	11,892 (84.2)	10,352 (82.1)	12,284 (76.6)	13,244 (73.4)	9,574 (76.8)	7,900 (66.5)																							

	<p>○미국에서 시행중인 “Botvin LifeSkills Training Program”은 6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주로 팀 활동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마약 및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마약의 영향과 부작용,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배우게 되는 정보 전달 ii) 마약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 기술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대안 고려, 효과 평가 등의 기술을 배우며, 이를 통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 결정 기술 iii) 학생들의 대인 관계 및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학생들은 적절한 대인 관계 형성, 대화 기술, 갈등 해결 전략 등을 배우고 실습하는 대인 관계 및 소통 기술 iv) 마약 사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것 대신 건강한 대안을 찾는 능력을 키워주는 스트레스 관리 vi)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자기 동기 부여 등을 배우고 연습하며, 건강한 행동의 기반이 되는 자기조절력 및 자기관리 향상 v) 학생들 간의 팀 활동과 협력을 장려하면서 학생들은 팀원들과의 협력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며, 동료들과 함께 마약 예방에 도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팀 활동 및 협력을 추구 <p>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마약 예방 교육은 심히 정보 주입, 전달에만(i) 치우쳐있다. 또한 사회와의 협력, 본인의 자기 조절등 본인 수준에 맞도록 필요한 영역을(iii, iv, v) 채울 수 있도록 활동을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구별된다.</p> <p>▶따라서 우리나라의 예방 교육은 과도한 정보주입만을 주로 다루고 청소년들의 수준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을 벗어나 흥미를 돋우고 본인의 역량에 맞도록 실리적인 마약 예방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p>
<p>제언하는 정책의 내용</p>	<p>가. 청소년 참여를 증진 시키는 트렌디한 예방 캠페인 시행. 청소년들의 흥미와 의견 반영을 목적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유행을 파악해 트렌디한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그대로 진행한다.</p> <p>Ex) 틱톡, 인스타 그램 릴스 등 숏폼 릴스와 틱톡이란?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가능한 영상제작 도구, 즉 숏폼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사람들이 재미있었기에, 본인이 원해서 업로드, 시청하기에 확산성과 참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p>

<유행을 이끌었던 아무노래 챌린지와 요즘 가장 뜨거운 해피캣 밈>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는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에서 1주일 만에 관련 챌린지 영상이 5만건이 넘어갈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해피캣 밈 또한 sns “인스타그램”의 기능 릴스에서 여러 가지 패러디와 더불어 뜨거운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재미있었기에, 본인이 원해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행하는 캠페인에서 요구하는 마약 예방 릴스의 요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스타일대로 캠페인을 제작할 수 있어야지만 반응은 뜨겁고, 마약 예방에 대한 인식도 널리 퍼진다. 따라서 캠페인에서의

요건은 **-영상의 본질이 마약 예방을 목적으로 할 것**

-영상의 본질이 마약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을 축으로 정한다.

(마약을 옹호하는 등, 취지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며 마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 요건이기에, 실제 기획을 할 때 더 자세히 정할 수 있다.

영상의 형식에 관한 요건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회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올리는 릴스는 무조건 춤을 통해서만, 상황극을 통해서만 참여 가능하다.” 등 직접적으로 영상의 형식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인 참여가 트렌디한 캠페인의 포인트이기 때문)

나. 마약 예방 릴스 대회 기획에 청소년 모집

마케팅 부문에서 유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현재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각 학교에서 모집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 중 선별하여 기획에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기획 부문에 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내용적 요건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른다.

(유행을 직접 느끼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트렌드를 활용해 캠페인을 시행할지 기획하고, 마약 예방, 학교폭력, 우울증 등 어떠한 사회문제를 내용으로 다룰 것인지, 또 그에 관한 요건 [앞서 예시를 들었던 두가지 요건]은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한다는 뜻.) 이 조건만 충족할 시, 취지가 청소년의 자유로운 시각과 의견 반영을 통한 예방 활동이므로, 이후 청소년들의 활용은 캠페인 기획의 따라 무궁무진하고 자유롭게 작용해도 무관하다.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대회 기획에서의 활동을 200자~ 300자 이내로 기록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

생활기록부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확보 및 예산소요예산</p>	<p>○ 예산확보 계획 : 인스타그램 릴스 대회 개최 타이틀이 예방교육이니 만큼 교육부를 통해 캠페인을 시행한다. - 교육부에서 릴스 대회 개최의 예산을 확보한다 - 교육부에서 청소년 기획 예산을 확보한다.</p> <p>일례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추진근거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고보조금 약 1000만원, 시군구비 1400만원. 합 2400만원.] 이처럼 캠페인 활동또한 예산을 지원받아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p> <p>○ 예산소요예산 - (예시) 마약 예방 캠페인 릴스 대회 1위 상금 50만원 및 ~ 2위 30만원 및 ~ - (예시) 청소년 마약 예방 기획 참여단 마케팅 기획 부문 금상 50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효과</p>	<p>○ 우리나라 예방 교육의 정보주입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의 수준과 의견을 반영하여 직접 마약 예방에 참여하며 마약 예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부를 수 있다.</p> <p>○ 본인의 취향, 의사에 맞도록 제작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의 활용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검토하여 수상하면 마약 예방 효과의 상승과 청소년들의 의견과 참여도 이끌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자료 및 출처</p>	<p>식품의약품안전처</p>